

이달의 어항 57 - 경남 마산시 진동면 광암항

# 맛! 멋! 어울림이 있는곳... 광암항

## ‘제8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려



유일한 인공 해수 욕장으로 1970년대 마산만의 가포 해수욕장이 환경오염으로 그 기능이 상실하자 창원군에서 지금의 광암해수욕장 해안에 모래를 인공으로 쌓아 만든 곳이다. 물결이 잔잔하고 갯벌이 발달하여 해

귀중한 자연사자료이다.

### ♣ 먹거리 및 축제

제철 먹거리는 잘 지은 보약 한 첩에 버금간다고 했다. 가을의 초입인 9월은 여름철 무더위에 잃어버렸던 입맛을 되찾는 계절이다. 특히 바닷가에서 나오는 음식이 제철이다.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을에 먹는 전어의 맛이 일품이란 뜻이다. 이곳 마산에서 지난 달 말에 ‘2008 마산 어시장 축제·전어축제’가 열려 시민과 관광객 20만명이 방문하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전어의 인기는 식지 않아, 주말을 비롯하여 시장에는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정말로 ‘가을 전어는 깨소금서말’인지 당장 가고파의 고장으로 한걸음에 달려가고 싶어진다.

○ 리명절인 추석이 평년보다 일찍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저마다 그 지방의 특산물과 제철 먹거리들을 내세워 가을 역새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 그 바람에 실려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맛과 멋과 어울림이 있는 곳 마산시는 지금 제철 먹거리인 전어와 국화꽃으로 한창이다. 그 한가운데 있는 마산시 진동면 광암항.

광암항이 위치한 진동면은 기후와 풍토가 연중 생활하기 적합하여 일찍이 신석기시대부터 우리조상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왔다

고려때 감무(監務)<sup>1)</sup>를 두고 조선시대 진해현으로 개칭되어 진해현 동면으로 불리다가 1910년 창원군 진동면으로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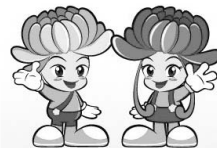
광암항은 동측으로 거제도 어장이 있으며, 남측으로는 거문도 어장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자원이 풍부한데 특히 도다리와 흰명게가 많이 잡힌다.

### ♣ 주변관광지

광암해수욕장은 만산, 진해, 창원지역의

산물이 풍부하며 수온도 항상 섭씨 22~23도로 따뜻한 편이어서 해수욕장로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다.

인근의 의림사도 가볼만한 곳으로 688년(신라 신문왕 8) 위웅대사(爲雄大師)가 봉덕사(奉德寺)로 창건하였는데, 임진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란 때 ‘의병들이 숲처럼 모여들었다’하여 의림사로 바뀌었다.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뒤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쳐 6·25전쟁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974년에 중창하였다.

이곳에 있는 3층석탑은 높이가 3m에 이르는 화강암 석탑으로 각 층의 탑신은 양쪽 모서리에 우주만 조각되었을 뿐 별다른 장식이 없고 옥개석에는 각형의 옥개받침을 5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고현리 공룡발자국화석은 공룡발자국의 내부구조가 가장 잘 노출되어 있는

또한 이곳에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8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마산은 우리나라 국화재배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1960년 회원동 일대에서 여섯 농가가 전국 최초로 국화 상업재배를 시작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다가 1976년 국내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을 하였다. 현재 전국 재배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40만불의 외화를 획득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국화산업의 메카이다.

내 마음의 반은 벌써 맛과 멋 그리고 어울림이 있는 마산시로 헤엄쳐 가고 있다.

### ♣ 찾아오는 길

- 대중교통 : 마산시 → 진동행 시외버스 이용 (25분 소요)
- 도로안내 : 함안 IC → 가야사거리(직진) → 외암(여항면) → 삼거리(우회전) 2번 국도, 1011번 지방도, 67번(구 1035번) 지방도 이용

1) 고려 중기·조선 전기에, 중앙의 관원을 파견하지 못한 지방의 작은 현(縣)을 다스리기 위하여 두었던 지방관. 태종 13년(1413)에 현감(縣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